요크셔테리어는 3대 500을 하는 소형견이다

[(파닥파닥)] 일반 소형견처럼 그냥 안겨 있는 개가 아닙니다

[쩝]

[견종백과 요크셔테리어편]

안녕하세요 강형욱의 견종백과

**요크셔테리어의 인기**

[아몽(요크셔테리어 / 9개월)] 요크셔테리어입니다

지금은 조금 인기 순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

1990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

소형견 계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

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친구입니다

[요크셔테리어의 유래?]

**요크셔테리어의 유래**

테리어가 뒤에 붙은 개들은 그냥 영국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

하운드가 들어갔다 싶으면 독일 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

테리어들은 앞에 영국 지역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

[(19세기 영구)] 이 친구는 잉글랜드 북부 지방에 요크셔라는 지역이 있었대요

그때 만들어진 친구고요

영국분들은 개를 진짜 좋아했나봐요

베들링턴 지역의 베들링턴 테리어

[(노퍽 지역의 노퍽 테리어)] 노퍽 테리어도 있고 되게 많아요

[(노리치 지역의 노리치 테리어)]

보통 테리어들은 사냥을 많이 했는데

이 요크셔테리어는 동네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

쥐를 잡았던 친구인 거예요

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옛날 옛날부터

사람하고 같이 살았었던 친구여서

굉장히 서민적인 반려견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

[요크셔테리어의 생김새?]

**요크셔테리어의 생김새**

기본적으로 요크셔테리어는 테리어의 특징인데요

이 허리가 굉장히 튼튼하고

많은 힘을 써야하기 때문에 통짜 허리예요

그다음에 다리가 좀 짧은데

얘는 다리가 좀 긴 편이고

대부분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

약간 고혹한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

[(여러 색이 조화를 이루는 요크셔테리어)]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와 갈색, 또 황금색의 조화가 있는데

황금색 털이 햇볕에 살짝 빛나면 그 순간

와... 이 감탄스러운

비단 같은 머릿결

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

지금도 딱 보세요

진짜 예술입니다

이 친구의 털 빠짐은

**요크셔테리어의 털 빠짐**

말티즈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

지금 털이 좀 묻었나 싶을 정도로 아예 털이 없어요

[(와이어 헤어)] 털이 좀 거칠거칠한 친구들이 특히나 털이 안 빠지는데

이 테리어 특유의 거친 털들이 속에 있어요

그래서 바짝 자르고 났을 때 만져보면

스포츠 머리한 중학생 애들 머리 만지는 거처럼

살짝 털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

[(탈출 시도)] 이쪽으로 좀 더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

[(간식으로 유인)] 금방 먹고 안 주니까 또 그냥 가려고 하네

**요크셔테리어의 활동량**

[요크셔테리어의 활동량?]

굉장히 운동량이 많이 있고요

공을 누구보다 좋아해요

삑삑이 난리납니다

[(테리어 특징)] 작은 설치류를 잡던 친구들이다 보니까

던져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이

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

환장 환장 그렇게 환장합니다

[고양이처럼 노는 아몽이.mp4] 고양이 장난감 중에 낚시 놀이하는 거 있죠?

그거 얘네들한테 해주면 진짜 좋아해요

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잔디나 흙이나 이런 데서

그런 거 해주시면서 놀아주시면은

운동량을 잘 채워주지 않을까

지금도 보세요

자기 키의 두 배가 넘는 높이의 이 쇼파도 그냥

[(손쉽게 점프)] 폴짝폴짝 뛰어 올라가잖아요

많이 많이 놀게 해주세요

**요크셔테리어의 성격**

[요크셔테리어의 성격?]

요크셔테리어는 소형견들 중에서도 좀

대범한 편이어서 그런지

사람한테 막 의존하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

요크셔테리어가 분리불안이 있을까?

분리불안 많이 없습니다

자기가 무슨 도베르만이 된냥

주인도 지키려고 하고 의리도 굉장히 많습니다

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대장 역할을 많이 하고요

아이들하고 되게 잘 지내요

근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게

아이들을 지가 가르치려고 합니다

진짜 자기가 누나나 형인줄 알고

아이들한테 훈계하는 경우도 있고

또 밖에 나가죠?

진짜 형들이 그러잖아 집에선 꿀밤 때려도

밖에 나가면 동생 지키듯이

밖에 나가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

그래서 아기를 유모차 태우고 이 친구랑 같이 나가면

주변에 다른 강아지들 오려고 하면

앙앙앙앙 짖는 경우들이

가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

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

약간의 예절 교육이 좀 필요해요

[(제가유?)]

리더스럽지 못한 보호자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

약간은 마초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

오구오구 키우시면은

아이 우리 보호자 왜 그래

나 너무 애 취급하지마!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

형님이 되려고, 리더가 되려고

노력하면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견종입니다

[요크셔테리어의 퍼피 시절?]

아 이런 특징이 있다

**요크셔테리어의 퍼피 시절 특징**

어렸을 때는 아주 살갑습니다 진짜 막

[(애교쟁이였던 어릴 적.jpg)] 순종적이고 애교 많고 그러다 보니까

얘네들이 오줌을 지리는 습관이

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

어렸을 때 잠깐 있다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

아유 예쁘다라고 하면은

순간 오줌을 싸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

근데 그 친구들이 7~8개월 정도 딱 지나면 금세 듬직해져서

내가 언제 그랬어? 라고 하는 거처럼

대담해지는 게 요크셔테리어이기도 합니다

[요크셔테리어의 질병?]

**요크셔테리어의 질병**

기관지가 좀 안 좋았던 거 같고

그리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

췌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

이 두 가지가 있다보니까

구토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

그래서 이 친구한테 잘 맞는 단백질을 찾는 거랑

소형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릎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

그런 것들은 살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

**요크셔테리어를 키우는 난이도**

[요크셔테리어를 키우는 난이도?]

[3.5점 / 10점] 3.5 주겠습니다

좀 의젓합니다

장남같고

그만큼 키우기가 수월합니다

[요크셔테리어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

약간 앙칼진 행동들을 가끔 하는데

초보 보호자님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

이것도 리더십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니

대범한 모습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

[(형욱 품에 소환된 아몽이)] 나한테 오면 또 파닥거릴 건데

잠깐만 있어봐

알았어 있어봐 있어봐

[요크셔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

**요크셔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**

요크셔테리어는 사실 큰 문제 없어요

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좋고

노인분이 계신 곳에서도 좋고

그냥 소형견이랑은 달라요

일반 소형견처럼 그냥 안겨있는 개가 아닙니다

[(파닥파닥)]

[(휴식)]

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니까요

그것만 생각하고 키우시면 됩니다

[요크셔테리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?]

**요크셔테리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?**

요크셔테리어는 3대 500을 하는 소형견이다

힘도 세고 에너지도 넘치고

헬스하는 개입니다